

비만 혁신 치료제 '위고비'... 보험 혜택은 갈 길 멀었다

메트릭스, 메디케어 등재 철회
국내에서도 비만치료제 보장 안돼
고가약값 환자 그대로 감당해야
의료적 접근으로 정책지원 필수



Chat GPT가 생성한 위고비 이미지.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미국에서 공보형 등재 추진이 전격 철회됐다. 국내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보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높은 약값을 환자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월 1000달러(약 146만원)에 달하는 비만치료제 비용을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 더 많은 환자가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 철회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

터(CMS) 역시 지난 4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약보다 건강한 식생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의료 재정 부담과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위고비를 비롯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이미 시장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해 10월 출시된 위고비는 보름 만에 1만1368건의 처방을 기록했고 11월에는 1만 6990건으로 경쟁 약물인 삭센다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2만20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다만 비만 치료제는 보험 혜택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위고비와 삭센다 등의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역시 대부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이르기까지 비만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범주에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전액 환자에게 돌리는 구조다.

게다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아 고가의 약값을 환자 본인이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출시를 앞둔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까지 약관을 보면 비만 E66코드가 아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은 비만치료도 급여에 한해 부책(보장가능)이나 보장을 받기 위해선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만약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5세대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보험업계에서도 소수 상품에 외적으로 비만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 문턱이 높다. 삼성화재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특약'을 판매 중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이며 BMI(체질량지수) 30kg/m²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비만을 단순 미용 이슈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만 치료제 고비용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현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치료 효과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선 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 효과가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급여화 확대, 의료진 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비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KB국민카드 위시드림 캠페인 성료 2주 새 목표걸음 달성

KB국민카드는 '위시드림(WE:SH DREAM)'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ESG 활동이다. 임직원들이 한 달 동안 목표 기부 걸음 수 1억보를 달성하면 아동들의 소원 선물 비용을 지원한다. 2주 만에 목표 걸음 수를 초과했다. 총 1억5852만보를 달성했다. 걸음을 통해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만큼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기부금은 취약 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한다. 사연을 공모받아 선정된 아동 555명이 속한 전국 50개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되며 내달 어린이날 맞이 선물 비용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챗GPT 구독행사 등 캐시백 제공 이벤트

신한카드는 디지털 구독 생활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행사에 응모하고, 솔트래블 체크카드로 챗GPT를 구독한 선착순 1만 명에게 3000원을 캐시백한다. 애플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인앱 결제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한다. 5월까지 ▲유튜브프리미엄 ▲쿠광와우 ▲넷플릭스 ▲웨이브 ▲멜론 멤버십 등을 신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총 1만5000원을 돌려준다. 최근 6개월 내 해당 서비스를 신한카드로 결제한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다.

롯데카드 디지로카옴 '발견'서 골프반명 행사 진행

롯데카드는 디지로카옴 '발견' 탭 골프카테고리에서 '골프반명' 행사를 실시한다.

연말까지 모든 롯데카드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결제하면 최대 10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평상내 골프카테고리에서 상품을 결제한 다음, 결제일로부터 3일 내 이벤트 페이지의 '반명' 버튼을 눌러 참여할 수 있다.

디지로카옴 발견탭 골프카테고리는 맞춤형 콘텐츠와 혜택, 상품 등을 한번에 제공한다. 골프라운딩 팁과 추천 골프용품, 골프쇼핑몰 할인쿠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포스코이앤씨, 유엔스튜디오와 '용산 정비창' 특화설계

獨벤츠박물관 등 다수실적 보유
사람을 위한 공간 디자인 적용
글로벌 중심 랜드마크 완성 목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어 포스코이앤씨는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맞춤형 특화 디자인'을 선보이겠다고 10일 밝혔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두바이 미래 교통 허브, 싱가포르 복합업무단지 등 상징성 높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엔스튜디오는 기술적 완성도와 디자인 혁신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을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등 굵직한 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설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조합 원안 설계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계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한남4구역에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과 협업한 바 있으며 압구정3구역 등 국내 도시정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송도국제업무지구, 해운대 엘시티, 여의도 파크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원 등의 복합개발 프

젝트를 성공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만을 위한 맞춤형 설계와 사람을 위한 공간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외관패널과 문주 및 내장재에는 내식성이 우수한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PosMAC)'을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각종 구조체 및 가시시설에는 포스코강재(Pos-H) 등을 적용해 튼튼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존의 틀에서 탈피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만을 위한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와 유엔스튜디오의 혁신적 설계 플라보로 글로벌 중심의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지원 기자 jiw13@

하나은행 美 글로벌파이낸스 韓 최우수 은행상

하나은행은 9일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통산 9회째이자 연속 5회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했다. 또한, 24회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과 통산 24회째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으로 선정됐다.

하나은행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금융 혁신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장기적 안정성에서 우수한 성과를 평가받았다. /사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원더라운드와 전략적 업무협약
2년간 WOKA 플랫폼 연계 서비스

우리은행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전용 플랫폼 'WOKA'를 운영하는 원더라운드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원더라운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장 위치, 상품 정보, 프로모션 등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국내 가맹점에서의 결제 및 ATM 출금이 가능한 선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WOKA'를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방윤선 우리은행 외환사업부장(왼쪽)과 마오칭 원더라운드 대표이사(가림촬영)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

2년간 WOKA 플랫폼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환율 우대

환전 ▲원화 출금 ▲선불카드 충전 등 금융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ATM 기반 출금 서비스 및 선불카드를 활용한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통해 국내 체류 동안의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외국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혜택은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WOKA와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